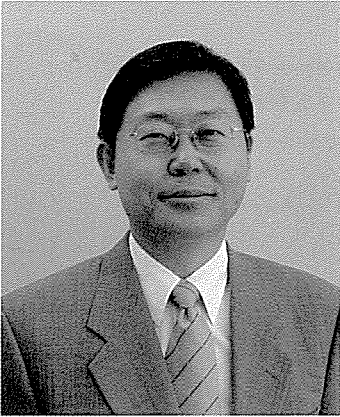


#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창립의의



| 조홍식 본 학회 회장  
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
우리나라는 현재 자주국방과 복지정책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. 핵이라는 무기로 불안 을 조장하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모색과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자주국방의 기조는 우리 군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이고 있다. 더구나 군대에서 개최된 대한 군진 의학학술대회에서 “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역할” 이라는 연구논문 발표와 우리 군에 사회사업 도입을 검토한 비공식 토의가 있었다. 1974년 2월에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병 원 사회사업 과장인 이부덕 대위를 초빙하여 30여명의 의무병과 중견 장교들이 모인 가운데 미 육 군의 사회사업 실적과 의료사회사업을 주제로 한 영화 2편을 소개한 바 있다. 이때 의무감실의 하 호욱 대령과 김영수 장군의 지원으로 제 1기 수련생은 영관급 장교 2명(소령 송창로, 김용)과 제2 기 수련생(소령 함호용)을 26주 동안 파견 훈련시킴으로 육군에 의료사회사업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. 이 후 1977년까지 6명의 사회사업 장교를 배출하여 각 통합병원에서 사 회사업 업무를 수행하였고, 1977년 이후 각 부대는 각 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ROTC 장교를 선발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. 1980년에는 국군의무 학교에서 간부반 새마을 교육에 최초로 ‘군 의료사회사업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1981년 고등 군사반과 간호 관 리반에 정규과정으로 채택되었고, 1982년부터는 장교 양성과정과 보수 교육과정에까지 확대, 실 시되었다. 현재 우리 군에는 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직업군인으로 각자의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, 군의료 사회복지사 52명이 의정장교로서 활동 중에 있다.


우리 한국군사회복지학회는 앞으로 군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 이 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. 현재 군 간부들 중에 대학원 과정을 군에 복무하면서 이수하고 있는 데 예전에는 행정학, 경영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사회복지를 선호하고 있고, 수업 중에 있 는 군 간부의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.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조차 군사복지란 어색하고 학문적인 연구도 저널에 발표나 몇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을 뿐이다. 정확히 말하면 군과 관련 된 논문은 많지만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집대성 하여 사고 예방, 심리, 병영 문화, 전역군인 복지, 보훈 관리, 연금, 군인 가족복지에 이르기까지 복 지서비스와 복지정책 등에 관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.

현재 사회복지 학자들과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군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해 나갈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.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 발전해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 며,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사들의 관리와 상담에 대한 집중적인 적용 방법을 찾아내도록 할 것 이다. 또한, 실제 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과 실용적인 군 문제 대책들을 마련하 여 보급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. 다시 말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고, 사회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강

# 이혼가족과 재혼가족

하면서도 부드러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갖추으로써 군과 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. 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.

우선 긴급한 '군사회복지사' 제도 구축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국회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를 잘 갖추도록 힘쓸 것이다. 우선 시범 사업을 하면서 군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. 군 내부에서 받아들여려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성숙 되어 가고 있다. 특히 군에서 도입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군 병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배치이다. 정신보건이든, 의료사회복지사든 100병상 당 1명이라는 기준을 볼 때 군 병원 중 1차적으로 4~5개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, 부천에 설립될 군종합병원이 설립될 때는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. 현재 예산확보 단계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 이렇게 볼 때,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필연적으로 군 사회복지가 도입되어 복지체계가 정립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은 명확하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기획자로서, 실천가로서 군 영역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. 우선 교육계의 노력이 중요하다. 대학에서 군 관련 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, 군에서의 실습 또한 요구된다.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도움도 역시 필요하다. 새로운 분야의 개척 과정 중에서 각 영역들 간에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,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.

이제 첫 발을 내디딘 군사회복지학회가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바라마지 않는다. 

## 이혼가족과 재혼가족

안향림 홍미기



\*\*\*



저 자 안향림 홍미기  
출판사 홍익재  
출판년도 2006년 8월

2002년 국내에서는 145,000쌍이 이혼했으며 이는 20년전에 비해 여섯배나 증가한 것이다.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이혼율 2위이다. 따라서 이제 더이상 가족복지를 다룰 때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을 제외할 수 없다.

이 책은 저자가 사회복지를 직접 전공한 교수인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고유기술인 '개입 방법'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혼, 재혼가정을 도울 수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. 또 영유아, 학령전아동, 저학년아동, 상급학년아동, 사춘기청소년 등 발달 단계별로 개입기술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이혼가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, 또 재혼가족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기술하고 있다.

특히 이혼에 대한 개입 논의는 30년 전부터 이미 사회복지계의 화두였다. 그 당시 이혼은 막아야 하는 것이지 치료의 분야가 아니었다.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저자는 이혼가족의 치료가능성을 보았으며 30년의 연구 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. 아직 많은 사회복지계 교수들마저 이혼은 법률가나 건전가정지원상담원들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입도구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하여 모든 가족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. 